고흥군, 제16회 우주항공축제 성공 개최 카운트다운… 축제위원회 본격 가동

# 차별화된 콘텐츠로 우주항공축제 승부수 던져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20일 군청 흥양홀에서 '제16회 고흥우주항공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고흥군 축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축제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5월 2일 개최 예정인 제16회 고흥우주항공축제의 기본계획을 점검하고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축제는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고, 체류형 관광을 유도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 확대 및 녹동바다불꽃축제와 연계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우주항공 전시·체험프로그램 다양화 ▲관광객 편의 및 안전관리 강화 ▲지역 상권과 연계한 경제 활성화 방안 ▲홍보 마케팅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성공적인 축제 개최 의지를 모았다.

또한, 축제위원회는 심의된 기본계획과 예산안을 바탕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보완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우주항공 체험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재학 축제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로 16회를 맞는 고흥우주항공축제는 우리 군의 브랜드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주과학 축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위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관람객 모두가 만족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군 관광정책실 관계자는 "오는 축제 둘째 날인 5월 3일에 선보이는 대한민국 공군비행단 '블랙이글스' 에어쇼는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참여 관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장 안전 대책 등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해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의 매력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6회 고흥우주항공축제는 오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일원에서 개최되며, 가장 인기가 많은 나로우주센터 발사장 견학프로그램은 3월 25일부터 축제 홈페이지에서 사전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우주과학 체험, 공연·전시, 가족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로 관광객을 맞이할 계획이다. 고흥/박도일 기자

## 장성군 "장기요양 환자, 집에서 진료받는다"

장성병원, 장성혜원병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협약

장성군이 지난 19일 군청 상황실에서 장성병원, 장성혜원병원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 인력팀을 파견해 통합 의료·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 주민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맞춤 방문 진료·간호, 지역자원 연계 등 필요한 지원을 펼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병원(061-390-9061), 장성혜원병원(061-399-3070)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병원 방문이 어려워 치료를 미뤄왔던 주민들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환자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협약은 정부 국정과제인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추진됐다. 기관·단체별로 시행되던 의료·요양 돌봄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통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오는 27일 첫걸음을 뗀다.

장성군은 앞선 2월에도 장성병원, 장성혜원병원, 장성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백양요양병원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업무협약을 맺는 등 통합돌봄지원사업 추진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왔다. 장성/황해연 기자

진도군, 도시민 대상 '진도에서 살아보기' 참여자 모집

## 귀농, 귀어, 귀촌 희망하는 '관외 거주 도시민 대상'

진도군이 진도에서의 삶을 2~3개월 동안 체험할 수 있는 '진도에서 살아보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진도에서 살아보기'는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일정 기간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촌 생활을 이해하고 영농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가자에게는 임시 주거 공간과 연수비가 제공되며, ▲농촌 이해 교육 ▲영농실습 ▲지역 주민과의 교류 활동 등이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남도전원한옥마을'과 '길은푸르미마을'에서 진행되는데, 참가 신청은 '그린대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남도전원한옥마을은 4월 2일까지 5가구(6명), 길은푸르미마을은 4월 21일까지 6가구(8명)를 모집한다.

지난해에 동일 사업을 통해 2개 마을에서 34명이 과정을 수료했으며, 이 가운데 11명이 진도에 정착했다.

참가자들은 2~3개월 동안 마을에 거주하며 ▲선도 농가와 귀농 귀촌 선배와의 만남 ▲영농어 체험 ▲정원과 화훼 가꾸기 ▲민속문화 체험 등 다양한 과정에 참여해 정착과 관련된 실질적인 정보를 얻으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진도군 관계자는 "귀농, 귀어, 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농어촌 생활을 직접 경험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보배섬 진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진도에서 살아보기'를 수료한 후에도 귀농, 귀촌인이 진도에 머물 수 있도록 귀농인의 집 7개소, 임대주택 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에는 귀농인의 집 5개소와 임대주택 2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진도/오재명 기자

## 광양시, 30일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접수

19~34세 무주택 청년에 월 최대 20만 원, 24개월 지원

광양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애 1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월 30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그동안 한시적으로 추진됐으나,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선정돼 올해부터 계속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등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2차 사업에서 신설됐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올해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뒤, 3월 30일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광양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150명의 청년을 신규 모집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9월에 안내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5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제출서류와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요건 등 지원대상 여부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그동안 한시적으로 추진되며 총 444명의 청년이 지원을 받아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신선호 기자

## 함평군,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대한다

고령층 의료비 경감 기여… 본인부담금 8만원→2만원

전남 함평군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확대 운영한다.

함평군은 24일 "함평군보건소가 60세 이상 군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확대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상포진 발생률이 높은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접종 대상자는 함평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0세 이상 군민이다. 접종 초기 인원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우선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오는 5월 4일부터는 6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한다.

기존 50세 이상 군민의 유료 접종(백신 원가 8만원)도 지속 운영된다.

함평군보건소 및 월야보건지소에서 평일 오전 9~11시, 오후 1~3시까지 접종 가능하며, 월야보건지소는 전화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백신은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으로, 본인부담금 2만원이다. 다만, 기접종자와 면역저하자(암 치료자 등)는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접종 이력 및 발병 일자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예진표 작성 시와 접종 직전 구두 확인을 통한 이중 점검을 실시하고,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안전한 접종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함평군 보건소 관계자는 "대상포진은 고령층에서 발병 시 심한 통증과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인 만큼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접종 일정에 맞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함평/전광춘 기자

## 담양군, 토마토뿔나방 확산 방지 '총력'

재배농가 대상 철저한 예찰 당부, 방제 물품 지원

담양군이 토마토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토마토뿔나방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토마토뿔나방은 가지과 식물을 선호하는 해충으로, 특히 토마토에 대한 기주 선호도가 높으며 알-유충(1~4령)-번데기-성충의 발육 단계를 거친다.

기온 27℃ 조건에서 1세대 발육 기간은 평균 24~38일이 소요되며, 연간 8~12세대가 발생할 정도로 번식력이 강하다.

특히 고온기인 여름철에는 발생 밀도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어 재배농가의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 피해는 유충이 식물체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내부 조직을 갉아먹으면서 발생한다. 어린 유충은 잎·줄기·꽃을 가해하고, 성장한 유충은 열매까지 파고들어 피해를 준다.

군은 지난 16일부터 관내 토마토 농가를 대상으로 관행농가와 친환경농가를 구분해 방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가는 오는 31일까지 관할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신청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토마토뿔나방은 번식력이 강한 만큼 초기 예찰과 신속한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현장 예찰과 방제 지원으로 피해 최소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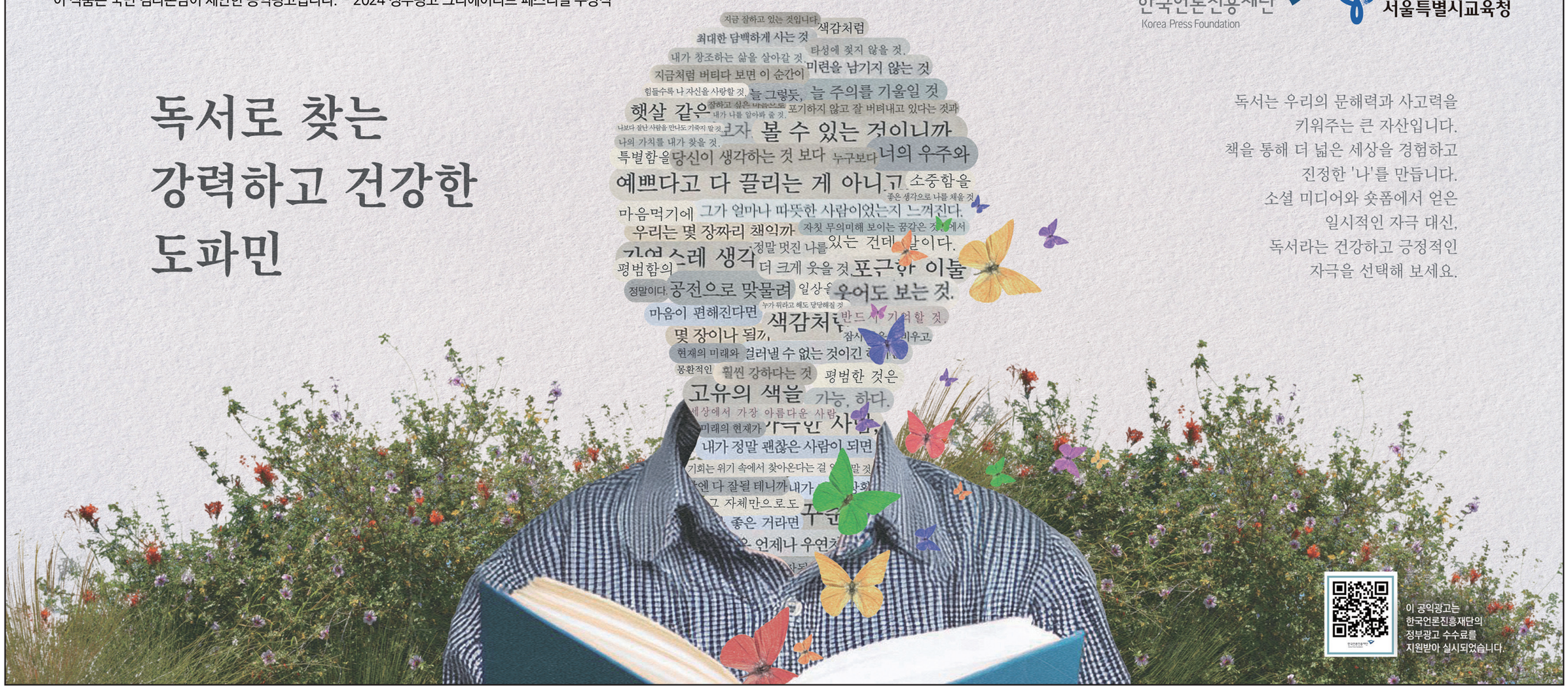
담양/이종옥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